

◇대동맥판막치환시 협소대동맥판륜 확장술의 중기결과

최강주, 김하늘루, 이양행, 조광현

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백병원 흉부외과

배경 및 목적 : _ 대동맥판막의 치환시 대동맥판륜이 협소하여 작은 판막을 치환하면 슬후 판막전후 압력차의 감소가 원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 협소한 대동맥판륜을 확장하고 보다 큰 판막으로 치환한 후 좌심실의 압력감소를 슬후 중기 추적결과로 분석하고자 한다.

방법 : _ 1991년 8월에서 1998년2월까지 대동맥판막협착증 18명을 대상으로 대동맥판륜확장술과 함께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행하였다. 남녀 각각 8명, 10명이었고 평균나이는 38세, 평균체표면적은 1.54 m² 이었으며 11명[61%]에서 승모판막치환술을 함께 하였다. 대상환자중 8례[44%]가 NYHA III, 9례[50%]가 NYHA II의 증세가 있었다. 협소한 대동맥판륜은 모두 Manouguian 방법으로 확장하였다.

결과 : _ 수술사망률은 5.5%[1례], 추적관찰은 83.3%, 평균 추적기간은 2.2 /- 5.6 년[6개월에서 4.8년] 이었다. 대동맥판륜은 평균 12.6 /- 6.3 mm가 확장되었고 기계판막 21mm이상을 치환하였다. 슬후 좌심실과 대동맥사이의 압력차는 슬후 평균 16 /- 5 mmHg로 슬전 보다 평균 30.2 /- 6.3 mmHg가 감소되어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[p<0.05]. 좌심실근량 지수는 슬후 평균 129 /- 69 gm/m²로 슬전보다 38.6 %가 감소하였다[p<0.05]. NYHA class는 슬전 평균 2.2에서 슬후 1로 호전되었다. 수술후 만기 합병증으로는 뇌혈관질환이 2례 있었다.

결론 : _ 협소대동맥판륜확장에 의한 판막치환슬후 좌심실 압력이 원할히 감소하였고 수술자체의 특별한 합병증이 없기 때문에 향후 협소대동맥판륜에서 판막치환의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.

책임저자:조광현(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) 발표자:최강주(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)